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뜬금없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뜬금없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뜬금없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뜬금없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뜬금없다	☒	☐
뜬금없다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뜯금없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 뜯금없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뜯금없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뜯금없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뜯금없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뜯금업- 문헌 수록 표기	—	—	—	—	—	● →
뜯금업- 문헌 수록 표기	—	—	—	—	—	● →
뜯금업-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뜯금없다

20세기

- 뜬금없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쓴금업-, 뜬금업-, 뜬금없-

↳ 뜬금없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뜬금없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뜬금없-’은 ‘뜬금’과 형용사 ‘없-’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뜬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표기 방식과 특징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쓴금업-’은 ‘ㄷ’의 된소리를 ‘ㅈ’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다.

📖 문헌 속의 뜬금없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쓴금업-, 뜬금업-, 뜬금없-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쓴금업-, 뜬금업-, 뜬금없-

출처 1928 조선일보 3월 7일 3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태호는 경수를 말 업시 물그럼이 한참 보다가 쓴금업는 말을 새내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10월 10일 4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맛기 어려운 엽사람의 마늘 냄새에 문득 잠을 깨니 뜬금업는 虛忘한 꿈이었다.

현대어 풀이

맛기 어려운 엽사람의 마늘 냄새에 문득 잠을 깨니 뜬금없는 허망한 꿈이었다.

출처 1958 동아일보 2월 25일 4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뜬금없는 소리가 있다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뜬금없다에 관한 주석

‘뜬금없다’의 ‘뜬금’이 ‘시세(時勢)’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조선시대에 장에 나온 물건의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가 제시하는 가격을 띄운 금(가격)이라는 의미로 ‘뜬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설명은 장날에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흥정이 되지 않으면 거간꾼이 들어 뜬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뜬금없다’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갑작스럽고 엉뚱하다라는 의미와 통하게 된다. 우리말 사전에도 ‘뜬금’이 있는데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는 뜻이다. 이와 달리 ‘뜬금’을 떠 있는 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목수가 나무를 자를 곳에 먹줄을 띄웠다가 놓으면 나무에 직선이 찍히는데 그런 선을 ‘뜬금’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뜬금은 계획이 된 선이므로 ‘뜬금없다’는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럽고 엉뚱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뜻의 ‘뜬금’은 사전에도 오르지 않았고 실제 사용된 예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뜬금없다 관련 낱말

뜬금

뜬금없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김수업 2017 싸전 · 베전 · 소전에서의 뜬금과 “뜬금없다” 《우리문화신문》등록 2017.03.23.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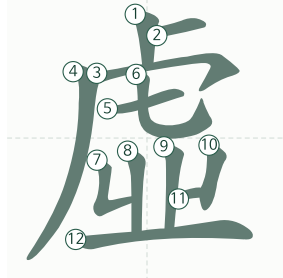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뜬금없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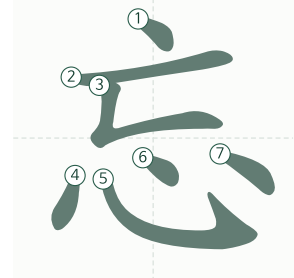
뜻·음 빌허
총 12획 · 부수 虍



hanja.wordrow.kr/한자/虛/

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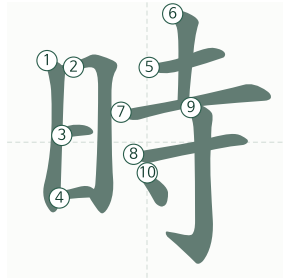
뜻·음 잊을 망
총 7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忘/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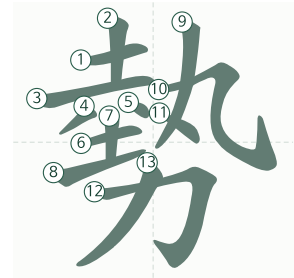
뜻·음 때 시
총 10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時/

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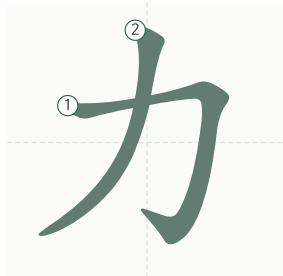
뜻·음 형세 세
총 13획 · 부수 力



hanja.wordrow.kr/한자/勢/

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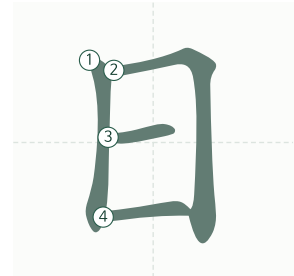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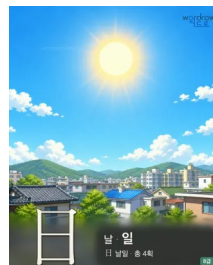
뜻·음 힘 력
총 2획 · 부수 力



hanja.wordrow.kr/한자/力/

日

뜻·음 날 일
총 4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日/